이재명 "與 과반 저지 가장 중요"

원주 유세 '인산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후 강원 원주시 중앙시장 일원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 총선판세 '백중세' 진단…지역구+비례 151석 목표 제시

"국힘이 과반 넘기면 나라 회복 어려워" 정권 심판·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현재 4·10 총선 판세를 여야의 호각, 백중세로 진단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 의석 확보를 희망 목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는 춘천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는 1당을 하는 것"이라며 "좀 더 욕심낸다면 민주당 자체로 151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국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과반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라면서 "민주당이 독자적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엔 정국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힘이 1당, 170석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나라는 지금까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락으로, 시스템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쉽게 낙관하기 어려운, 참 어려운 선거"라고 진단했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본부장단회의에서 "현재의 판세는 매우 유동적이고 빡빡한 백중세"라며 "151석을 현재 여전히 최대의 희망 목표로 보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지역과 비례를 포함해서 1당 확보가 매우 힘겨운 반집 싸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상임 선대위원장단이 심도 깊은 분석과 토론을 했다. 최대 153석까지를 전망하는 것으로 보도된 희망치는 현재로선 최대의 희망일 뿐이란 판단을 내렸다"며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심판을 희망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긴장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한병도 전략본부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권역별 판세를 종합하면 지역구에서 130~140석 정도 승리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석수를 '13석+α'로 전망했다.

김부겸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박빙 열세였다가 좀 호각세, 바둑 같으면 지금 계가 바둑, 아마 치열한 그런 단계에 접어들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아직은 저희가 조금 열세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 석이라도 지금 여당보다 많아서 윤석열 정부의 거의 독주하다시피 하는 이 통치 행태 자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며 "(향후 지지율이) 두세 번은 출렁거린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서울 강북을' 경선 조수진 공천

박용진, 재경선서도 탈락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재선 박용진 의원이 19일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로 공석이 된 자신의 지역구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조수진 변호사에게 패해 낙천했다.

박범계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강북을 전략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전국 권리당원 70%·강북을 지역 권리당원 30% 온라인 투표 합산 방식으로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경선에서 박 의원을 꺾었다.

노무현재단 이사이기도 한 조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보좌관 출신이다.

현역 의원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박 의원은 '경선 득표의 30% 감산' 페널티를 안고 경선에 임한 반면 조 변호사는 여성 신인에게 주어지는 '가점 25%'를 받았다.

/연합뉴스

4·10 총선 누가 뛰나 (민=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힘, 개=개혁신당, 새=새로운미래, 무=무소속… 사진은 기호순)

이개호 4선 도전 성공할까

국민의힘·무소속 후보 등 거센 도전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21대 총선, 민주당에 80% 지지

국힘, 지난 지방선거서 12% 득표

'소지역주의' 유권자 표심 자극 관건

이개호(민)

김유성(국)

곽진오(개)

김선우(새)

이석형(무)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80%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힘을 실어줬고, 국민의당 '녹색돌풍' 이 강타한 20대 총선 때도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의 손을 들어줬던 지역이다.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지역인 만큼 박진감이 떨어지긴 하지만 지켜볼 만한 이슈가 적지않다.

이들 지역에서는 현역인 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유성 후보, 개혁신당 곽진오 후보, 새로운 미래 김선우 후보, 무소속 이석형 후보가 저마다 금배지의 꿈을 꾸고 있다.

우선, 3선으로 광주·전남 최다선 의원인 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석형 후보 간 대결 구도는 관전 포인트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 2014년 7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석형 후보와 맞붙어 공천권을 따낸 뒤 10년 만인 올해 이 후보와 다시 민주당 공천 경쟁을 벌인데 이어 이 후보 탈당으로 본선 대결까지 치르게 된 형국이다.

이 의원의 경우 행정고시(24회)에 합격한 뒤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지난 2014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20대(2016년)·21대(2020년)까지 당내 경선 없이 본선으로 직행, 내리 3선을 했고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의 단수 공천을 받고 본선에 진출하면서 '정치적 행운아'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반면, 단수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후보들과의 불화·잡음을 원만히 해결해 '원팀'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조직 장악력과 '4선'을 노리는 '이개호 피로감'은 해결할 과제라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소지역주의 성향이 엿보이는 4개 지역 표심에 따른 후보간 유불리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달 기준 18세 이상 인구는 담양 4만 937명, 영광 4만 5127명, 함평 2만 8039명, 장성은 3만 8129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고향인 담양에서 90%가 넘는 지지를 얻었고 국민의당과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진 20대 총선에서도 60% 가깝게 지지해준 담양 유권자들 덕택에 '녹색돌풍'인 국민의당을 넘어섰다.

반면, 함평 출신으로 3선 함평 군수를 지낸 이석형 후보는 함평을 바탕으로 지지기반을 점차 넓히면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복안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함평군수에 출마, 12%의 득표율을 보인 국민의힘 김유성 후보도 "현재 함평에 사는 유일한 후보"라며 본선 채비를 하고 있다.

광주제일고와 조선대 법대(석사)를 거쳐 33년간 경찰 공무원을 지낸 김 후보는 함평과 영광에 사무실을 내고 지역 교두보 확보를 위해 힘껏 뛰겠다는 각오다.

개혁신당에서는 함평 출신 곽진오 배재대 연구교수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그는 일본 중앙대(법학부)를 거쳐 고려대 연구교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등을 주요 경력으로 올렸다.

영광 출신인 김선우 전 복지TV 사장은 오는 21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새로운미래 후보로 선거에 뛰어든다.

광주 서석고와 고려대를 거쳐 복지TV 사장을 지낸 김 전 사장은 19일 공천장을 받고 늦게 뛰어들었지만 이번 총선에서 소외감을 갖고 있는 영광 지역 유권자들의 바람을 자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중 앙 신 용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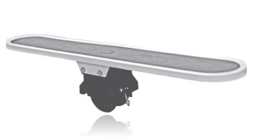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 2023 국세청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